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606호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산업]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첫선
06

[라이프]
위생용품 불티
업계 '好好'
L1

서울 공기 좋아졌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 옅어져
주요 발생원인 난방·수송서 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도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분진흡입청소차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도로 청소 시연 모습. /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2019년 같은 기간 평균 농도(28.2㎍/㎥)와 비교해 1.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좋음'인 날은 4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3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집계됐다. 전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이틀 동안 시행된 운행제한(2019년 12월 10~11일) 때 일평균 4730대가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72% 줄어든 수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관내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한 달간 서울에 1만3486대의 친환경보일러가 설치됐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 기간에 총 5만5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를 점검해 불법 배출행위를 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0곳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25개소도 집중적으로 살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 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곳도 행정 조치(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기존 1일 1회에서 하루 최대 4회 청소를 진행했다.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는 13만727㎞로, 전년 같은 기간 10만7073㎞보다 22% 늘었다.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 격리시설 화재 대응 등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 '사고대응 종합대책' 수립
화재 발생땐 제독차·전담구급대 출동
입소자 위한 별도 대피장소 마련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가 배치된 음압구급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와 같은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고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본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소방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책 실행에 나섰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안전 순찰로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이 나면 소방서장의 지휘 아래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다.

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감염병 확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 시행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치료·격리시설이다. 5일 기준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36개소, 감염병 전담병원은 12곳, 상설선별진료소는 82개소로 집계됐다.

본부는 우선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 대한 안전 순찰과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확진자 입소 현황은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인하는 등 시설의 구조적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다. 소방통로도 미리 확보해 소방 차량을 배치할 위치도 점검한다.

현장 대응은 소방관서장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소방관서장 현지 확인 행정'으로 시행된다. 현장 확인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에 반영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활용한다.

119 신고 접수 시 코로나19 관련 시설 여부가 확인되면 소방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독차, 전담 구급대, 단체이송용 차량을 추가로 출동시킨다. 119대원이 현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입소자를 위한 별도 대피장소도 마련한다. 시설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현장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입소자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감염병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하이브리드차 혼잡통행료 면제

제3종 저공해車 50% 감면 폐지

서울시는 7일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은 올해 4월부터 없어진다.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제2종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저공해 자동차라면 등록지와 스티커 발부 여부 관계없이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강원도,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맞손'

강원도형 배달앱 운영사 파트너로 참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추진하는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원도형 배달앱 운영사 ㈜코리아센터가 12번째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5일 강원도와 부산 남구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코리아센터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리아센터는 '배달특급'을 비롯한 전국 공공배달앱들이 모인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에 참여해 공정한 배달앱 시장 만들기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성기 기자

경기도, 비정규직 보상책 '공정수당' 첫 지급

공공기관·기간제 노동자 1792명 대상
이재명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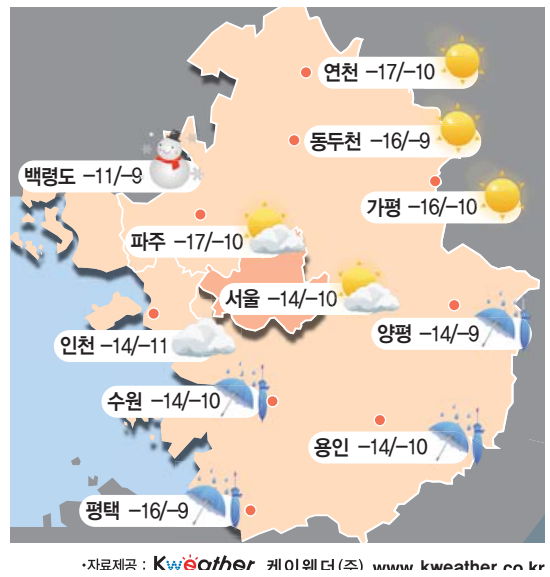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47 | 해짐 / 17:30

1월
7일 (木)
음력 : 11월 24일

수도권 날씨
-14 ~ -1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